

## 토요타, 양산차에 '디지털아웃터미러' 적용

토요타자동차가 사이드미러를 대신해 카메라가 좌우 후방의 영상을 찍어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디지털아웃터미러' (사진)를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오늘 10월 일본에서 발매할 예정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의 신형 ES 일부 차종에 디지털아웃터미러를 탑재할 예정이다.



만일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고장을 알려주며, 자동으로 서비스 센터에 고장 정보가 전달돼 신속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단, 디지털아웃터미러는 기존 거울형 사이드미러를 통해 보는 것과 비교해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아웃터미러는 차량 양 옆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좌우 후방 영상을 운전석 전면 양측에 놓인 5인치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디스플레이가 차량 내측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드미러에 비해 시선이동이 크게 줄어 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카메라의 영상은 기존의 광학식 사이드미러에 비해 왜곡이 적으며,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광각모드로 전환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광각모드로 전환되면, 기존의 사이드미러와는 차원이 다른,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수준의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고 회전구간 등을 통과할 때에나 주차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아웃터 미러는 기존의 사이드미러보다 훨씬 작고 가느다란 형태를 띤다. 이 가느다란 구조물의 끝 부분에는 소형의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사이드미러에 비해 한층 작고 가늘어진 형상으로 인하여 기존 사이드미러에 비해 풍절음이 크게 저감돼 정숙성도 높아지고 전측면 시야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까지 얻었다.

우천시에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카메라 부분은 물방울이 맺히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고, 김서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도 내장돼 있다. 또 영상을 밝게 처리함으로써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조작해 표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양측면에 위치하는 사이드미러는 후방 시야의 확보를 위한 필수품이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사이드미러를 '혹' 처럼 취급하는 인식도 있다. 자동차의 공기저항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사이드미러를 대체하기 위한 공리를 해 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행의 양산차에서 사이드미러가 제거된다면 최대 10% 수준에 달하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거울'이라는 제한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특성 상, 좁은 시야각에서 비롯된 사각지대 문제도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임산부라면 알아야 할 운전 주의 사항

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운전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신체적 충격이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임신 중에는 반사 신경이 둔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급격히 감정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운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운전을 하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의사항과 팁들을 '금호타이어' (blog.kumhotire.co.kr)가 소개했다.

###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임산부의 배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와 자궁에 무리를 주지 않게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일단 어깨 벨트는 양쪽 가슴 사이를 지나가도록 어

깨부터 사선으로 맨다. 그리고 아래 벨트는 자궁이 있는 곳을 피해, 배꼽 아랫부분부터 골반 쪽으로 내려 착용한다. 너무 헐겁지도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게끔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벨트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아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수건이나 얇은 담요 등을 벨트와 신체 사이에 끼워 넣는 것도 좋다.

### ■ 장시간 운전 시 스트레칭하기

배가 무거운 임산부는 허리를 뒤로 쫓히는 자세를 자주 하기 때문에 허리 척추 라인이 무너지기 쉽다. 거기다 척추 기립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 저하를 유발하는 장시간 운전까지 더해지면, 디스크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임산부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할 상황에

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에 쌓인 피로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목과 어깨 돌리기, 두발 뺨기, 발목 펴고 돌리기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굳은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다.

### ■ 운전석 조정

좌석과 핸들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복부에 압박이 가해지므로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등을 구부리고 운전을 하면 조기 진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좌석과 등받이의 각도는 110° 정도로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석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하게 넣고, 등과 등받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 뒤쪽과 좌석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도록 좌석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